

2/4분기 석유시장 전망

3월 중순부터 국제 油價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. OPEC 평균유가는 年初의 19.75\$/B(1/5)를 頂點으로 점차 하락하여 1월 19.04\$/B, 2월 18.06\$/B을 기록한 바 있다. 3월 16일 현재의 OPEC 平均油價는 前週對比 0.80\$/B이 급락한 16.86\$/B을 나타내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/4분기의 평균유가는 18\$/B 내외로 추정됨으로써 전년보다 14%의 上昇을 보이고 있다.

18\$/B수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. 東歐圈 개혁에 따른 소비증가, 소련의 對東歐 公需 缺감에 따른 대체수요증대, 北海油田 등의 非OPEC 公需장에 우려 등이 그 배경이다(작년 2/4分期는 非需 期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건, 사고의 연속으로 油價가 크게 상승하였었음).

종합해 볼 때 2/4분기 전체 평균유가는 16~17\$/B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. 16\$/B이하 油價는 OPEC

OPEC 평균 현물가격

(단위: \$/B)

1988 年間	1989				1990 年間	1990			
	1 / 4	2 / 4	3 / 4	4 / 4		1 월	2 월	3 월	1 / 4
13.69	15.73	17.01	16.02	17.44	16.56	19.04	18.06	16.5내외	18

최근의 油價급락은 비수기인 2/4분기를 앞두고 있는 데도 OPEC 原油의 과잉생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인한다. OPEC의 현재 생산실적은 23.3백만b/d로써 1988년(22.086백만b/d)를 1.2백만b/d 초과하고 있으며, 당초의 석유시장 예상(22.5~23백만b/d)을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다. 더욱이 3월 16~17일에 개최된 OPEC 감시위원회는 현재의 1988년 1/4분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았고, 생산자제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 따라서 현재의 생산수준이 2/4분기에 가서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.

2/4분기의 對OPEC 原油수요전망은 20.8백만b/d(OPEC사무국)~22.2백만b/d(PIW)로 기관에 따라 큰 변동범위를 갖고 있다. 이와같이 현재의 石油市場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. 그러나 23백만b/d를 넘는 현재의 생산이 지속된다면 1백만b/d 혹은 그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급구조적 약세라는데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.

문제는 油價가 얼마나 하락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. 2/4분기중 OPEC 평균유가가 최저 15\$/B까지 하락(페르시아灣 국제은행)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, 대부분의 관측(예: Oil Daily紙, James Tanner)은 16\$/B을 2/4분기의 최저유가로 보고 있다. 최근의 석유시장 특징은 공급초과규모에 비해 油價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. OPEC 석유장관들은 2/4분기 油價가

로 하여금 油價 회복노력을 촉발시킬 것이다. 16\$/B 이하 油價가 지속될 경우 OPEC는 임시총회 등을 개최할 의도임을 이번 감시위원회에서 시사한 바 있다. 특히 현재의 1988년 1/4분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았고, 생산자제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 따라서 현재의 생산수준이 2/4분기에 가서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.

또한 작년처럼 우발적 사건,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급구조적 약세에 있는 2/4분기 油價가 1/4分期의 18\$/B보다 높게 형성되리라고 보기도 힘들다.

2/4분기 油價 결정의 또 다른 주요 변수는 OECD 石油社들의 재고전략으로서 이는 油價 하락저지 또는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 금년초 OECD의 상업적 1988년 1/4분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았고, 생산자제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 따라서 현재의 생산수준이 2/4분기에 가서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.

石油社들은 向後 油價상승에 대비하여 재고보유를 늘리려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. 3/4분기 재고일수를 작년수준(65日)까지 늘리기 위한 재고수요증대는 1.6백만b/d로 시사되며, 이는 2/4分期의 공급과잉예상분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.☛